



폐기물예치금제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애로건의

본회 생활전자과에서는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기로 지난해 12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바 있는 「내구재(가전제품 등)에 대한 법정이자율 할인제도」, 「예치금 졸업제도」,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설투

자본 감면제도」등 세가지 개선제도를 조속히 확정 시행해 줄 것을 지난달 9일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 본회는 세가지 개선제도가 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 가전업체가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수·재자원화사업” 등에 관한 200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간 본회에서 수차례 건의했던 내용들을 법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디지털 TV 시대의 개막 세미나관련 임원간담회 개최

본회 생활전자과에서는 지난 9월 9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3사의 관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7일 개막되는 '99 한국전자전 부대행사로

개최될 「디지털TV 시대의 개막」세미나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동전화 단말기 수출 업계 회의 개최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지난

달 2일 삼성전자 등 관련업체 수출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전화 단말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수요폭증으로 부품공급업체의 생산능력부족이 심화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 이동전화 수출은 7월말까지 18.3억불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CDMA 방식이 10억불, GSM 방식이 8억불로 집계되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관련 전자업계 애로건의

본회 생활전자과에서는 오는 2000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특소비세법 시행시기를 금년 10월 혹은 11월초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 지난달 15일 긴급 건의하였다.

이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한다는 지난 8월 25

일 정부발표이후 소비자들의 구매지연과 대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컬러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의 판매가 40~70%나 감소하고 있어 업계의 경영압박은 물론 이러한 상태가 한두달 이어질 경우 기존 영세 가전유통업체의 20%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업계 회의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9월 17일 신원인더스트리 등 10개사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업계 회의를 가졌다.

진흥회

활동사항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업체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 핵심칩인 톰슨원칩의 공급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참석자들이 말하였다.

위성방송수신기는 8월까지 비수기가 끝나 점차 유럽과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HDTV카메라시스템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지난 9월 9일 방송장비 산업의 활성화와 국산화촉진을 위해 KBS 기술진을 초청 디지털 HDTV카메라 시스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 기술연구소 구형서 연구원이 KBS의 아날로그 HDTV카

메라 시스템 개발개요 및 향후 공동개발 범위 및 진행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항공 등

폐PC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본회 정보산업과에서는 최근 국회 등에서 PC 폐기물 논란과 관련 업계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8일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폐 PC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본회에서 일본 EIAJ의 "폐컴퓨터 회수·처리·리사이클의 현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입수 번역해 업계에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관련업체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소기용 코드릴 등 자본재 표준화 회의

본회 개발표준팀에서는 지난 달 청소기용 코드릴 및 흡입구, CATV용 구내분기기, LCD모니터용 0.5mm Board to Board 커넥터 등의 자본재표준화 회의를 갖고 금년도 자본재표준화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신기기 해외인증에 관한 업계 회의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지난 달 16일 삼성전자 등 통신기기 관련업계 회의를 갖고 현지점에서 일본과의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의 별도추진은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

보통신기기는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극히 미미한 반면 수입은 통신기기만도 연간 수억불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

도 인증을 획득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상호인정의 별도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비디오폰, CCTV류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휴대폰 광전송장치,안테나 등 무선통신부품, 레이다 항행용 기기 등이다.

<<진흥회 9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9. 2	청소기용 코드릴 표준화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개발표준팀
9. 2	산업기술개발자금 첨단분야 심의회		개발표준팀
9. 3	이동전화 수출업계 회의	현대전자, 삼성전자, 한화/정보통신 스탠더드텔레콤, 맥슨전자, 텔슨전자	정보통신산업부
9. 6	전자부품정보 인터넷검색시스템구축실사		전자산업부
9. 8	페PC 담당부서장 회의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LG IBM, 현대밀티캡	정보통신산업부
9. 8	산업기술개발자금 시제품분야 심의회		개발표준팀
9. 8	디지털TV 세미나 관련 임원회의	(팔레스호텔)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전자산업부
9. 9	폐기물 예치금제도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애로건의	(환경부)	전자산업부
9. 9	디지털 HDTV카메라 시스템 설명회	삼성항공, 하가전자, 동서전자, LG정보통신, 케이투이, 대우전자	정보통신산업부
9. 9	CATV 구내분기기 표준화 회의	동양텔레콤, 삼창텔레콤, 중앙텔레콤, 한애전자, 한일전자	개발표준팀
9. 9	우수개발전자부품콘테스트 심의위 개최		전자산업부
9.10	자율재활용체계 정책연구회 참석	(상명대학교)	전자산업부
9.10	디지털TV 방송 대국민 홍보팸플렛 관련 회의		전자산업부
9.10	코드리스폰 수출부서장 회의	삼성전자, 대우통신, 대영전자공업, 태광산업	정보통신산업부
9.10	모니터수출분과위원회 회의	현대전자, 오리온전기, KDS, 대우전자, 삼성전자, 한솔전자	정보통신산업부
9.14	산업기술개발자금 사후관리 설명회		개발표준팀
9.15	특소세법개정관련 전자업계 애로건의	(재정경제부, 국민회의, 자민련)	전자산업부
9.15	CPU 관세관련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 대우통신	정보통신산업부
9.15	LCD 콘넥터 표준화 회의	현대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연호전자, LG전선	개발표준팀
9.16	디지털 TV 수출촉진 전담반 회의		전자산업부
9.16	한일 MRA 관련 업계회의	LG전자, 삼성전자, 중앙전자공업, 한국통신, 디지털	정보통신산업부
9.17	CPT 실무대책 회의	LG전자 삼성전자, 오리온전기,	국계부
9.17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업계 회의	신원인더스트리 등 10개사	정보통신산업부
9.17	청소기 흡입구 표준화 회의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우남	개발표준팀